# ‘붓다톡’으로 불자공동체 구축 앞장을

특별인터뷰

##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주윤식 제27대 중앙신도회장은…** 1992년 제8교구본사 직지사를 재적사찰로 등록 후 1993년 법상스님을 전계사로 계를 받았다. 2017년 조계종 제8교구 신도회장으로 취임 후, 승보공양 운동을 전개해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뒷받침했다. 승보공양 운동 8개월 만에 후원자 1000명을 모집했고 이 공로로 2019년 포교대상 공로상도 수상했다. 대구 중견기업 상하수처리 교반기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기도 하다. 사진은 붓다톡 앱이 담긴 스마트폰을 들고 밝게 웃는 주윤식 회장의 모습.

**‘불자 네트워크’ 메신저앱**
**4월 출시, 각계 보고 한창**
**메신저기능 및 QR멤버쉽**

**10년차 행복바라미 캠페인**
**지역 중심 테마문화제 확산**
**영화제 비롯 활동주제 제시**



불교성전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심의 요체이기도 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불교성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한 불자들의 모습.

2021년 6월 24일 서울 전법회관에서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2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지원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3월 17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인 불자 메신저 앱 ‘B톡’ (이하 붓다톡)이 4월 정식 출시된다고 밝혔다.

불자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앞두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누구보다 이에 대한 기대가 컸다. 2019년 취임 이후 코로나 확산 속에서 신도 조직화 등 불자 역량 제고에 힘썼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던 터였다.

주윤식 회장은 “취임 이후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불교 불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동력을 갖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붓다톡’ 보급 사업 향후 주력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붓다톡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멤버십 회원증과 함께 가입한 회원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하고, 각종 생활 혜택에 더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교계에서는 먼저 불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조계종 신도등록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조계종 신도라는 한정된 자격과 제한된 정보 등으로 이를 활용하는 부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붓다톡에는 불자들과 함께 불교경제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중앙신도회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불자 기업들 간의 상생을 이끌고, 불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공동체까지 구축해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주윤식 회장은 “먼저 웹 속에 DB를 넣어 행정구역별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른 불자들의 정보를 알고 각종 사업에서 불자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 회장은 그동안 사회에서 불자들의 역량 발휘가 이웃종교에 비해 약했던 것은 이러한 상호 협력의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 회장은 “개신교 신자들을 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같은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의 물건을 사곤 한다.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 것이 결국 전법 포교 동력으로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불자들의 정보가 한데 모아지고, 이용자 수 등이 담보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참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붓다톡에서는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와 같이 회원 가입 후에는 금융 혜택, 물품 구입 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참여도 이뤄져 기업은행이 환전 우대와 특별 금융상품을, 전자랜드가 특가상품 및 5% 상품권 제공 등을, 한화리조트가 회원가 숙박 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회원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돼 이들 기업에서 사용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주 회장은 “신도 등록시 주어지는 사찰무료입장의 경우 신도와 불자라면 사찰을 찾을 때 일반인들보다 더 신심껏 보시해야 하기에 오히려 유료입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신도들 역량 결집이 결국 정보 디지털화에서 이뤄질 수 있다. 그에 기반하면 자연스럽게 혜택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총무원장 스님과 포교원장 스님 등에 붓다톡 개발상황을 보고하고,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불자들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비슷한 통합 메신저인 붓다톡은 메신저 기능제공과 불교 각 단체 활동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 회장은 “일반인들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전국 사찰 위치 및 특징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도들의 활동, 사업 뿐만 아니라 사찰 정보와 소식 등을 담아 스마트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어느 큰스님의 법문도 유튜브로 접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유튜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교 관련 법률 상담을 맡는 변호사, 불교 관련 건축업자 등 불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기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는 불자들이 많이 모여야 100만명이 모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수백만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류가 되고 도와가면 자연스럽게 역량발휘가 되리라 봅니다.”

### 본분은 ‘권선’, 포교 마중물 역할 필요

주윤식 회장은 불자로서의 본분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서는 만큼 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기존 신자, 불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회장은 “스님들이 전법 포교에 나서는 것은 부처님 법을 많이 알려서 대중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신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주변에 비불자가 있으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법석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1기 졸업시 2기 입학자를 모집하도록 한 봉은사 수미산원정대를 예로 들며, 법회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주변인들에게 권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부처님 당시 어떻게 교세가 커졌는지를 살펴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직접 가서 들어보니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점점 커졌기 때문”이라며 “부처님 당시 법을 듣기 위해 이웃집 사람도, 형님도,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하니 점점 법이 퍼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러한 적극적 역할이 바로 신도들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께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한 사람, 어떤 감동이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법하고, 전법 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좋은게 있으면 서로 권선하고, 이끌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회장은 붓다톡 또한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사실 불자들만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활용하면 여러면에서 더 장점이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한두번이라도 불교계 소식을 접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명이 열명한테 권하기만 해도 많이 홍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부처님 복밭 짓는 〈불교성전〉 보급 앞장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지역마다 개최한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불교성전 보급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조계종 서점에서는 조계종 신도의 경우 10% 할인 혜택을 주고 판매시 20% 가량의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보급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앙신도회는 이 사업을 이어받아 한명이 두명에게 법공양 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는 지난해 코로나 와중에도 나름의 성과를 맺었다.

주 회장은 “불교성전 봉정식을 보며 성전을 보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불교성전이라면, 나라에서는 국정교과서다.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인데 불자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금강경을 한번 만 읊어도 죽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공덕이 쌓인다는데 불교성전을 다른 이들에게 권선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공덕을 짓는 것이 아닐까요.”

릴레이 캠페인은 본인이 받은 〈불교성전〉이 타인이 본인을 위한 보시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불교성전〉을 받은 불자들은 다시 다른 이들 2명에게 〈불교성전〉을 보시했다.

주 회장은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자 문화가 ‘보시’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는 부분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할인 안해줘도 좋으니 보시하겠다고 쾌척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불교성전 판매 수익은 각 교구신도회의 활동비로도 활용돼 신도조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만 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릴레이 캠페인을 온라인 중심으로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한번은 강원도 사찰 법회에 갔을 때입니다. 아직도 불교성전에 대해 모르는 불자님들이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각 교구본사나 사찰을 다니며 불교성전 수지독송과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다닐 계획입니다.”

### 10년 맞은 행복바라미 지역테마 사업 전개

중앙신도회는 올해 10주년을 맞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도 9월 중 중앙 행사와 함께 나눔문화 캠페인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새해를 맞아 중앙신도회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불교영화제인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를 8월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 예정이다. 전국 순회 상영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 축제를 비롯한 지역 테마 사업은 신도조직화에도 필수적이라는게 주윤식 회장의 지론이다.

주 회장은 “불교 신도조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지역 테마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회장은 “불교계 공익사업인 행복바라미의 경우 10년을 맞았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10년이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불교계 원력이 모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각 지역에서 진행되기에 점점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지역문화제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 6교구의 경우 탁발 모연을 하고, 조계종 9교구의 경우 승시축제를 여는 등 지역별 테마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주 회장은 “당초에는 모금 위주였다면 이제는 지역문화 창달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이웃을 위한 모금 뿐만 아니라 지역불교문화를 알리고, 그 문화를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월 열리는 국제불교박람회에도 처음으로 대형부스를 만들어,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 회장은 “그동안 중앙신도회가 행복바라미 사업을 이끌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 지역불교계와 교구신도회가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역할로의 변화”라며 “다시 지역에서 선순환 되는 모금캠페인의 선례를 장기적으로 구축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불자 · 신도로서 본분 지키는 한해로

주윤식 회장은 “불교는 개미신도들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스님들이 그 단단한 기반을 딛고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네트워크 사업 등을 하여 신도들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넣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들이 신도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분을 다하자는 것이 취임사였는데, 상월결사에 참여하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 회장은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을 보조하는 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 회장은 “스님들이 얼마나 절실하면 몸 상해가면서 거리로 나오겠습니까. 함께 수행해가며 한명이라도 전법하고자 하는 간절함에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불자들이 엄청난 신심을 갖고 있지만 힘을 모으는 방법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도층이 더 두꺼워지고, 넓게 만들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2021년 한해는 힘든 한해였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하면 2022년 한해 행복으로 가득찰 것입니다.”